

2006. 9. 28 (木)

第152回 束草市議會(定例會)

市政質問 答辯書

답변목록 (4건)

1.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 / 김강수 의원) / 2p
2. 청학동소재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도시과장 / 김성근 의원) / 6p
3. 민선 제4기 비전과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시장 / 김명동 의원) / 10p
4. 경로사상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 할인혜택 관련
시책 추진 (사회복지과장 / 김진기 의원) / 22p

束 草 市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속초항물류지원사무소
제 목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 변 자	시 장
《질문요지》 ○ 젓갈류 가공업체들이 공장이전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한 대포 제2농공단지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現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지원, 운전자금 지원확대, 공동 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속초항은 외항선 기항을 위한 냉동창고 시설 및 급유를 담당하는 유류선 등 관련 설비의 미비(未備)로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계획 추진이 의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속초항 인프라시설 확충 계획은? ○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한 폐기물매립장 시설의 간접영향권 발생시 입주업체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답변내용》 ○ 김강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해양수산 가공산업을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 첫째, 젓갈류 가공업체들이 「대포 제2농공단지」 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現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지원, 운전자금 지원확대, 공동 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의 질문에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포 제2농공단지」는 現 대포농공단지 남측에 85,543m² 규모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96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물 가공 제조업과 향후 친환경 기업유치 정책에 의거 유치될 각종 제조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과 수입원료를 식품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립니다.

관내 젓갈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만 보더라도 총 17개소로, 그중 10개소는 매년 약 4,560톤가량 원료를 부산항 등지에서 95%이상 중간도매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어 물류비용 및 수수료의 부담이 적지 않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 젓갈 가공업계의 현실입니다.

市에서는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춘항운과 협의를 통해 젓갈의 주를 이루는 명란을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로 선적하여 속초항으로 입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장을 통한 제1금융권에서 구입 희망물량을 대량 매입하여 냉동보관 창고에 저장후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만큼 공급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으며,

금융권에서 물량을 대량 구입할 경우 물류비용 등이 절감되는 등 업체에서 원료구입비 절감과 적절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금융권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젓갈가공산업 단지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은

- 젓갈산업을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판로 다변화 및 건강식품으로의 우위 선점은 물론
- 가공·제조산업 육성으로 일거리 창출과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벨트 조성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 및 연구실, 공동냉장저장고, 체험관, 홍보관, 역사관과 공동 폐수 처리시설 등이 시설될 수 있는 『해양수산물가공 종합유통단지 클러스터』를 금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젓갈산업 업체에서 수출용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1개소로 나머지 16개소는 현재의 시설과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일부는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는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운전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 조성 등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총 17개 제조업에서 이미 2개 제조업은 既입주를 하였고, 13개의 업체에서는 입주 희망의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 1~2년내에 입주는 약 5개 업체가 예상되고, 나머지는 3년내 80%이상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젓갈산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가치의 해양수산 가공산업을 입주시키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속초항 인프라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항은 외항선 면세유 급유체계가 미비한 관계로 입항 외항선이 급유를 신청할 경우 동해항에서 유조선이 옥계저유소를 거쳐 최소 5시간 이후 또는 다음날 급유가 가능하며, 유류값 외에 미니멈 차지 1,500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조선을 보유한 선박급유업체를 유치 하거나 육상저장 급유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급유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항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사무소와 적극 협조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외국어선 입·출항에 따른 도선사 확보 문제도 도선에 필요한 선사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정 톤수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임의도선 될 수있도록 제도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산 수입수산물을 유치하기 위한 보세창고 설치는 해수공급 라인 설치와 연계하며 부지 확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축 중인 수협냉동 창고도 함께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셋째,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예상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인 대포위생매립장은 '93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기존 매립장과 연접하여 금년 5월에 신규 매립장 55,957㎡를 착공하였고,

2007년도에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 및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최신의 공법을 도입하여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으로 '06. 3. 14부터 강원대 환경기술연구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성영향조사 의뢰는 물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발주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07. 5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예상되는 피해영향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통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성 근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	답 변 자	도시과장
《질문요지》 ○ 2005 이후 청학동 소재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연계 사업인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 답변 요구			
《답변내용》 ○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청학동 소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 주차장간 도로개설 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총연장 798m에 폭은 12m로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총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년차별로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2,065백만원을 투자 청초호 유원지에서부터 100m의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 현재 추가로 300m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실시 하고 있어 본 구간은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2007년도에는 약 15억원을 투자 군부대 남측의 남은 40m 구간에 대한 보상과 도로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 ◆ 군부대 북측지역에 위치한 금호주차장에서부터 군부대까지 190m 구간에 대한 일부 보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또한, 2008년에는 보상에 대한 마무리와 동시, 사업에 착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인접 도로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 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사실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원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보고를 받으시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의원님도 계시지만,
처음 접하는 의원님도 계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본 내용에는 군부대로부터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부득히 그러한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보고를 올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를 포함하여 약 5천평 정도 이고,
- ◆ 근무자 숙소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막사, 기타 군시설물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 ◆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군부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 남북 방향으로 교차 계획되어 있으나,
- ◆ 본 도로는 속초시 도시계획상 남북으로 계획된 해안 변에 위치한 유일한 도로로서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입니다.
-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보상 규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고자 협의하였으나,
- ◆ 군부대 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방식의 방법에 의거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보충설명을 드리면 속초시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이러한 시설 이전부지를 제공한 자에게 기존의 군부대 부지 및 시설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 ◆ 군부대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 이와 관련, 이전에 관하여는 군부대측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건은 이전지입니다.
- ◆ 군부대 측도 구체적으로 이전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우리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해안 변에 수심 등 적정한 입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군부대의 판단입니다.
- ◆ 이에 타 지역에서 적정장소를 찾고자 , 여러 곳을 답사한 결과 적정 장소를 찾아 이전에 필요한 요소요소를 우리시에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 이전 부지는 수심이 5m 이상 되는 해안이 접한 부지로서 약 15,000평의 토지가 필요하고,
군사시설물 설치를 포함하여,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토지가격을 판단하면 사업비의 25% 수준으로,
- ◆ 향후, 상당한 가치증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지만,
이는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 그러나 요즈음 지역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론의 중심에 있는 현실에, 이전장소를 우리시가 타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로써,
- ◆ 이는 군부대가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재차 요구하고자 합니다.
- ◆ 아울러 우리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우리시의 책무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 ◆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전의 확실성 확보와 향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대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되,
사업비 재원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약속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명 동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관 광 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제 목	민선 제4기 비전과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답 변 자	시 장
《질문요지》 ○ 민선 제4기 재정운영기조 및 2006년도 총예산액(204,171백만원)중 복지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각각의 비율은? ○ 금년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 및 반영 예산액과 향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 속초경제살리기 주요정책 비전과 소요예산액 및 예산확보 계획은? ○ 속초시 총 채무내역과 상환대책은? ○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어업인 소득증대 대책은? ○ 지역경기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문화축제를 발전시킬 계획은? ○ 식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은?			
《답변내용》 ○ 먼저,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명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첫째, 민선 제4기 재정운영기조 및 2006년도 총예산액(204,171백만원) 중 복지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각각의 비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기간중 「해양·수산 가공산업」의 新성장 주력산업 육성 및 「젓갈산업」 특화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 가시화 및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속초항의 『환동해 해양·물류 중심항』 육성과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등 해양산업 육성, 중앙시장 활성화 및 물 부족문제 등 지역 당면현안과제를 중점 해결하고 민자·외자유치, 스포츠 마케팅, 「속초발전추진단」 전담 전문조직(Task Force) 설치 운영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을 하면서 임기 4년 동안 속초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올인하는 “경제시장”으로서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을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조직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他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보며 이렇게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 속초를 풍요로운 정주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관광 진흥, 복지시책 등이 적절히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정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어떤 시책에 先투자되어야 할 부분인가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인 2,041억원은

— 복지예산에 13%인 265억원

— 인건비는 14.8%인 303억원

— 경상적경비는 11%인 226억원

— 기타 자체사업 및 의존사업에 61.2%인 1,247억원이며,
특히, 경제살리기 시책에는 7.6%인 15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 및 반영 예산액과 향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열해지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속에서 우리시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의 최우선과제를 지역경제 살리기로 설정하고 주수입원인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고, 돈지갑을 열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 확충 및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매력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14일 집중호우 이후 수해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이 급감되는 등 여름 피서경기 실종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다양한 여름축제를 준비하여 남대문·동대문 등 현장방문과 인터넷 홍보 등 온오프(on-off)를 총망라한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동해안 他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피서객이 감소한 반면, 속초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이후 첫 1백만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시내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청정해역과 경관이 우수하여 他 해수욕장과 차별화된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서 조성하고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조양동 일원

○ 면 적 : 237,950m²

※ 면적변경(당초348,900m²⇒변경237,950m²) : “강원도 지정관광지 개발 실태조사결과 조치계획통보(관광91710-974, 2001. 9. 6, 강원도)”에 따라 속초해수욕장관광지 구역중 주거지역 공유수면 재척

○ 사업내용

- ❖ 공공부문 : 도로(산책로), 주차장, X-GAME장, 휴게소, 전망대, 테마광장, 다목적잔디관장, 조경휴양공간, 기반시설 등
- ❖ 민간부문 : 해양관, 호텔, 상가, 매점, 해수풀장

○ 총 소요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기투자('05.12월까지)			2006년 추진		
	계	공공	민자	계	공공	민자	계	공공	민자
총사업비	374,609	27,403	347,206	25,534	5,509	20,025	2,668	2,668	

※ 2006년 사업추진 내역 : 부지매입(4,545m²), 하수관정비

□ 2007년 추진계획

○ 사업비 : 3,600백만원 (국비 800 · 도비 240 · 시비2,560)

○ 사업내용

- 주차장 : 355m²
- 휴게소 : 1,020m²
- 전기통신공사 : 1식
- 상 · 하수관 : 700m
- 조경휴양공간 : 7,987m²
- 조경(식재,시설물) : 1,081m²

또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과제」로서 설악동의 침체극복 및 장기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사업개요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 '84. 8.31 설악관광특구로 지정(속초시 전역)
- 사업량 : 3개 집단시설지구, 2,124천m²
- 총사업비 : 5,699억원(국비 544, 지방비 238, 기타 4,917)
- 사업기간 : '04~'15(본격사업 추진기간 '07~'15)
- 사업내용
 -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 단계별 재정비 추진 : A(자연 · 문화), E·F(여가 · 위락) → C(건강 · 휴양) → B지구(휴양 · 체류)

□ 추진상황

- '05. 8월 : 기본계획 완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6억원)
- '05.10월 :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반려(환경부) ※ 계속 협의중
- '05.12월 : 기본설계 계약(한국관광공사, 4억원)
- '05 ~ '07년 : 재정비사업 이전 환경개선사업 추진(26억원)

□ 문제점

- 환경부 자체용역 완료시(1억원, KEI)까지 검토 유보입장
※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용역 ('06. 9월말 납품예정)
-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공공부분의 선투자와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총사업비 5,677억원중 공공재원 760억원(13.4%)

관광산업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에 강원대학교 GIS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을 신청하여 30백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속초시 관광산업 RIS 구축을 위한 U-관광 콘텐츠개발 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광산업과 지역특화산업과의 공동발전 방안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환경 변화속에서 설악산 등 기존 관광지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관광목적지로서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비 투자없이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육로관광 이후 침체일로에 빠져있는 설악권 관광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관광특구법의 조기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강원도와 설악권 4개시군은 공동으로 26,7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정문헌 국회의원은 이를 기초로 의원발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법이 조기에 재정되어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을 민자·외자로 원활히 유치할 수

있으므로 법제정에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 속초경제살리기 주요정책 비전과 소요예산액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인터넷 상권의 발달로 전국이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의 영세 유통산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으로서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단기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노인 일거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농어촌 지원사업,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등의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경제성·효용성 있는 사업은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 사업인 민자·외자 유치, 스포츠마케팅 및 관광레저사업 해양수산 가공산업 육성, 속초항 물류지원 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준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4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 금년 제2회 추경에 41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 총 154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 9월 현재 약 4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 대책안 66건의 부서별 추진성과는 완료 3건·추진중인 사업이 58건·당초사업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5건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대책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둘 수 있도록 부서별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우리시 총 채무내역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총 채무액은 833억 3천 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에 46억 4천만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 7억 6천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정수장 건설외 2건에 224억 5천만원,
-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554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중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이 전체 채무액에 66.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채무부담행위액을 제외하면 실질채무액은 278억 5천만원으로 他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대책입니다.

일반회계의 상환원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약 6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도 통상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22억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견됩니다.

또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대포항이 전국적인 인지도와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분양시기인 2010년 이전부터 매립부지에 대한 철저한 분양계획과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先분양을 통하여 차질 없이 분양이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어업인 소득증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살리기 대책으로,

DDA 협상,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영세한 농업구조,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기회와 위협의 요인이 공존하는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市는 신선채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체험, 건강농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하도문 쌈채류, 학사평 콩을 이용한 가공상품, 장천 옛날장·한우사육 등과 같은 마을별로 특성화 농업을 정착하여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 고품농업 실천으로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여 지역브랜드 상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고품격 특화작목 등 농촌자원과 우리시의 관광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직접 농업을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기반시설 구축 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어 우리 농업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으로 인해 더욱더 불리해 질 전망이나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병행하여 관광농업, 체험농업, 건강농업을 장기 핵심 목표로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살아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유가 상승 및 계속되는 어획부진으로 근해어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함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진 대책에 대해서는,

UN해양법 발효('94), 한·일어업협정 체결('98)등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시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수산자원조성의 지속추진으로 자원의 자연생산력 향상 및 어업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3개사업 43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464천미 / 200백만원), 해면어류치어방류(187천미 / 85백만원),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4개소 / 150백만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둘째, 어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어촌민생지원사업으로는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사업(458척 / 420백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1개소 / 100백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1식 / 50백만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2,966개 / 10백만원)사업 등이 있으며,
- 셋째, 청정해양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장정화(18톤/50백만원), 침체어망인양(37톤 / 160백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65톤 / 44백만원),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120톤/60백만원), 연안환경정비(37톤/50백만원)를 통한 수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밖에 어업생산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07년도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으로는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1개소/100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1개소 / 50억), 청호동어구보수·보관장(1동/40억), 장사동 활어회센터 신축(1개소/4억) 등 새로운 사업발굴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득 사업 발굴을 위하여 행정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섯번째, 지역경기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문화 축제를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설악문화제가 40년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부족과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고유한 컨셉개발 미흡, 전국화 전략의 부재로 일부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제41회 설악문화제는 민속행사와 체육행사를 폐지하고洞 대항 경기를 축소한 반면 외지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특화된 국민적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자 대규모 단위 경연 행사는 중앙시장에서 개최하고, 설악산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전국산악등반대회를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전국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뿌리를 둔 독특한 프로그램을 더욱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접목시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이후 후속행사 부재에 따른 대안 마련 및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대단위 국제행사 개최차원에서 환동해권 국내·외 지방정부 및 관광기업체가 참가하는 「환동해권 관광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작업을 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갈수기 물 부족으로 인한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형여건상 주수원인 쌍천은 유역면적이 협소하고 유로 연장이 짧아 담수면적이 적으므로 인해 단기간의 가뭄에도 수량이 감소되어 1997년도에 쌍천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평상시는 70%의 여유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뭄이 장기화되면 이마저 물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단기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비상취수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쌍천수계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악취수장에서의 잔여수량을 속초정수장으로 도수하여 사용코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연장 8.3Km구간 중 6.5Km에 대하여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 쌍천취수장까지 본관 및 임시관로의 매설을 완료 하므로써 1일 5천톤에서 7천톤의 원수가 확보되었으며 비상관정 등을 총가동하면 1일 1만2천톤에서 1만5천톤의 수량을 갈수기에 추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구간 1.8Km에 대하여는 뚝발제도로개설과 병행시공이 완료되면 속초정수장으로 바로 유입 되게 되어 단기적으로 갈수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및 식수 전용저류지의 건설을 요청한 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동해북부권의 광역상수도개발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으나,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착수가 미정인 상태이며 환경부의 식수전용저류지 개발사업 또한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가 예상되며, 시설비 역시 도농통합형 지자체가 아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중·장기 상수원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인접 지자체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협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市에서는 집중우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노학동 속초소방서 일대와 조양동 성광교회 일대(오복빌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속초소방서 일대는 청초호 매립으로 방류관거가 400m이상 연장되면서 유속이 감소됨은 물론 넓은 강우면적(삼환APT, 도리원, 럭키APT 등)의 우수가 소방서앞 한곳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청초호 수위상승으로 방류량보다 유입량이 많아 침수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既 형성된 지형상(구배, 건축물 등) 배수관을 확장할 수 없어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市에서는 EXPO일대의 1,873m 배수관에 장기간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중(9.13~10.27, 347백만원)에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청초호유원지 교동지구내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펌프 5대 : 115m³/min 3대·124m³/min 2대, 사업비 : 54억/국비 37·도비 8·시비 9)를 설치, 강제 배수처리하여 침수지역을 개선하고자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양동 성광교회 일대(오복빌라)는 지형이 인근 지역보다 낮아 정상배수(46mm/hr 이하시)를 초과한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빗물펌프장을 2007년도에 증설(hr당 720톤 ⇒ 1,560톤, 200백만원)하여 일대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명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진기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제 목	경로사상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 할인혜택 관련시책 추진	답 변 자	사회복지과장

《질문요지》

-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목욕탕, 이발소, 개인 의원, 식당 등 의료·서비스·일반상가 업체 이용 시 일정액 할인혜택 추진의향

《답변내용》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 우리시 발전과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김진기 의원님께서 65세이상 노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할인혜택 우대지정 업소에 대한 의견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 연령별 현황에서 80세이상 노인 1,514명(17%)는 혼자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계층

- 계층별 현황에서 독거노인수와 시설노인 2,444명(28%)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결연해야 할 대상자 계층
- 노인생활실태 현황에서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3,888명중 일반노인이 3,606명(42%)이지만, 이들 노인들중 치매노인이나, 경증 및 중증질환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수를 제외하면 실제 약 2,000명(23%) 가량의 노인만이 할인 혜택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도내에서는 할인제도를 추진 운영하는 시·군은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효 카드 발급으로 우대 할인제도를 하고 있으나,

참여업종이 3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로 노인들의 선호도가 없어 사업이 부진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참여업소에게 할인제도를 지속토록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어르신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경로사상 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 혜택 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업소 속출 및 실업률 증가 추세로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인혜택제도 도입 시기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시점에 각 업소 협회·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협조와 자원봉사확산 등 사회적분위기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